

다시 푸는 경서

달마 혈맥론(血脈論) ③

昔有善星比丘 講得十二經部
석유선성비구 송득십이경부
猶自不免輪迴 緣爲不見性
유자불면회연위불견성
善星既如此 今時人
선성기여차 금시인
講得三五本經論以
講得三五本經論이
爲佛法者 人若不識得自心
위불법자우인야 악불식득자심
講得聞文書 都無用處 若要免佛
송득한문서 도무용처 약오면佛
直須見性 性即是佛 佛即是自人
직수견성 성즉시佛 불즉시자재인
無事無作人 若不見性 終日茫茫
무사무작인 악불견성 종일망망
向外馳求 兜佛元來不得
향외치구 뎡불원래부득

찾아가 간절히 물어서 마음이 열리게
해야 한다. 생사 문제는 큰 것이니
헛되이 보내지 말라. 스스로 속이는
것은 이익이 없다. 진기한 보물이 산
것고 권속이 항하의 모래처럼 많다
해도, 눈을 떠야 보이지 눈을 감으면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유위법(有爲
法)은 꿈이나 허깨비 같음을 알 수
있다. 만약 서둘러 스승을 찾지 않으면
헛되이 일생을 보내리라. 그러므로 불
성을 스스로 지니고 있으나 스승에게서
배우지 않으면 끝내 밝게 깨달을
수 없다. 스승 없이 깨닫는 사람은 만
에 하나도 드물다.

若自己以緣會合 得聖人言
약자기 이연회합 득성인언
即不用參善知識
즉불용참선지식
此即是生而知之勝學也
此即是生而知之勝學也
若未悟解 須勤苦參學 因教
若未悟解 須勤苦參學 因教
契妙法 須堅固信賴 因教
契妙法 須堅固信賴 因教
方得悟 若自明了 不學亦得
方得悟 若自明了 不學亦得
不同迷人 不能分別 明白
不同迷人 不能分別 明白
부동미인 불능분별 조백
妄言宣佛勸 佛妄法
망언선불취 방불망법

옛날에 선성(善星)이란 사람은 12부
경을 다 외웠으나 여전히 윤회를 면치
못했으니, 이는 경성하지 못해서이다.
선성도 그러한데 요즘 사람들은 겨우
서너 권의 경전을 읽고 불법을 알았다
고 하니 참으로 어리석다. 만일 자기
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부질없이 문구
나 외운다면 이는 아무 소용이 없다.
만일 부처를 찾으려 한다면 모름지기
견성해야 한다.

깨닫지 못했다면 선지식 찾아가
간절히 물어서 마음 열리게 하라

성품이 곧 부처이다. 부처는 곧 자
유인이며, 무위(無爲)의 사람이다. 만
약 견성하지 못하면 종일토록 분주히
박을 향해 구하면서 부처를 찾기도 알
지 못한다.

如斯等類 說法如雨
여사등류 설법여우
盡是魔說 即非佛說 師是魔王
盡是魔說 即非佛說 師是魔王
진사마실 즉비불설 사시마왕
弟子是魔民 迷人任他指揮
제자시마민 미인타지휘
不覺墮生死海
불각타생사해

만약 스스로 인연이라 깨달아서 성
인의 뜻을 얻은 사람은 선지식을 찾을
필요가 없다. 이는 태어나면서 뛰어난
학문을 갖춘 것이고, 만약 깨닫지
못했다면 선지식에 배워야 한다.
가르침을 받아야 깨닫는다. 만약 스
스르가 분명히 깨달았다면 배우지 않
아도 되며, 미혹된 사람과는 같이 않
다. 그리고 겹고 흰 것을 분간치 못하
면서 불법을 권하고 믿음을 한다면 부
처님을 비방하고 법을 욕되게 하는 것
이니, 이런 부류는 빗길기갈이 설법을
하더라도 다 악마의 소리로 부처님의
말씀은 아니다. 이런 스승은 마왕이요,
제자는 악마의 백성이 되며, 미혹된 사
람은 그의 지휘에 따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생사의 바다에 헤매게 된다.
김원각(시인·역경위원)

雖無一物可得 若未會亦須參善知識
수무일물가득 약미회역수참선지식
切須苦求 令心會解 生死事大
절수고구 영심회해 생사사대
不得空過 自非無益 縱有珍寶如山
부득공과 자공무익 종유진보여산
眷屬如恒河沙 開眼即見
권속여항하사 개안즉견
合眼還見塵 故知有爲之法
합안환견塵 故知有爲之法
합안환견마 고지유위지법
如夢如影 若不急尋師
여몽환등 약불급심사
空過一生空然
공과일생연즉
佛性自有 若不因師 終不明了
불성자유 악불인사 종불명료
不取師者 萬中希有
불인사오자 만중희유

비록 한 물건도 얻을 것이 없다고는
하나, 만약 깨닫지 못했다면 선지식을

16대 국회의원 선거, 이를 앞두고 벌어지는 각 정당
의 치열한 공천 경쟁을 신문과 방송이 대대적으로 보
도하는 이 즈음이다. 정치권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
으니 덩달아 우리의 삶도 휩쓸리고 있다. 시민단체의
낙천·낙선 운동은 우리 사회의 큰 변화를 이끌고 있
다.
변화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불교

큰 스님과의 대화

범행스님
팔달선원 조실

에서는 변화를 무상(無常)이란 말로 표현하듯이 변화
는 세상의 이치다. 변화의 시기일수록 구심점을 필
요로 한다. 또 종교의 역할도 더욱 커진다. 현재를 어
떻게 보며, 어떻게 내일을 준비해야 할 것인지 나침
반이 있어야 한다. 수원 팔달선원에 주석하고 계신
범행스님을 만나 변화의 시기를 살아가는 지혜를 들
었다.

“相生하는 세상 만들어야”

—시민운동단체의 낙천 낙선운동이 거
세게 일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사, 사회
사에 큰 변화의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가하면, 일부 급진
세력의 여론을 빙자한 불법행위라는 비
난도 있는데, 요즘 세상 일을 어떻게 보
시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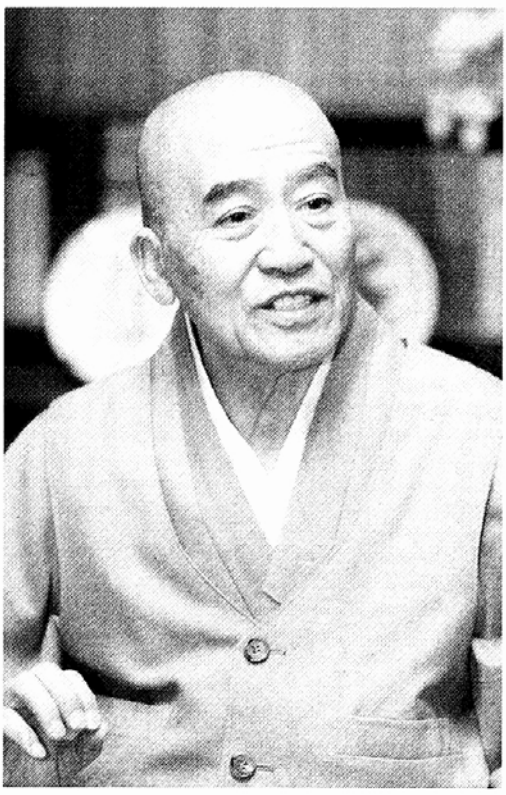
▲ 지금은 조직사회입니다. 돈을 가지
고 조직을 만듭니다. 세상의 변화도 돈이
좌우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고약
한 얘기로 들렸지만, 돈과의 싸움이겠
지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인들이 지금의 운동을 불러들인
것인데, 어느 정치인 하나 겸허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변명만 할 게 아니
고 당시는 피차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
랬는데, 매질을 감수하고 잘 하겠다. 한
번의 기회를 달라고 왜 말할 수 없습니
까? 그래야 멋있게 될텐데요.
경쟁을 보면, 그 사람의 출생성분이나
말로써 귀천(貴賤)을 가르는 것이 아니
라 하는 일이 그 사람의 귀천을 결정한
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유권자들이 정치
인들의 삶을 잘 살펴야지요.

—변화의 시가 일수록 전통과 진보의 바
람직한 관계라고 할까요. 균형각각이 필
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 당연히 너무 빨라도 안되고, 늦어도
안되겠지요. 그러나 변해야 합니다. 정치
하는 사람들이 국민들 눈치를 볼 줄 알
아야지요. 국민들도 정치인을 우리들의
대표로서 존경하고 뒷받침할 줄 알아야
하고요. 그런데 그 접점이 자기입장에서
생각하니까 어긋나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란 국민의 대표이며, 심부름하는 일꾼이
라는 원칙을 가지고 서로 상대방의 입
장에서 바라보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합니
다. 그래야 서로 살리는 상생(相生)이 됩
니다. 변화의 지향점도 상생하는 세상을
만드는 데 있어야 합니다.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의 가르침이고 선조들의 가르침입
니다. 과보가 있잖아요. 살려주면 살림
도 받고, 죽이면 죽음으로 받는 것이 이
치입니다. 이 간단한 이치를 왜 자꾸 잊
어버리니까?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종교인들의 역
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스님께서 보시



- 1921년 경기 화성 생
· 48년 금산 태고사에서
포산스님을 은사로
출가
· 52년 선학원 팔달선원
원장
· 63년 선학원 원장
· 70~75년 대한불교
신문(불교신문 전신)
시장
· 73~91년 선학원
이사장
· 95~98년 수원시
불교연합회 회장
· 조계사, 통도사,
물곡사, 수덕사,
동은사 주지 역임
· 현재 수원 팔달선원
주석

기에, 불교인들이 남의 모범이 되도록 살
고 있는지,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지적해
주십시오.

▲ 세상이 어지러울 때일수록 종교인의
역할이 컸습니다. 세상사의 이
해관계에 매어 있지 않으니 바른 말을
할 수 있다고 세상사람들은 생각하고 있
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종교인들, 특
히 수행자나 성직자들도 세상과 똑같이
돌아가고 있어요. 요즘 세상은 복잡하고
수행하는 사람들이 볼 때 어떤 일 자체
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이러
저리 살펴봐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
종교의 지도자들이 세상에 대해 말을 하
고 싶어도 못할 경우도 있을 겁니다. 다
만, 종교의 가르침대로 살고, 신도들에게
그 종교의 참뜻을 제대로 가르치지만 해

기도 가피의 경험을 밝히시기도 했는데,
올바른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 출가 전 결핵으로 병고를 겪다가 태
고사를 찾았어요. 그때 포산스님이 한권
의 책을 주시면서 “이 책 속에 있는 관세
음보살모다라니주를 일일정념으로 곁
속에서도 송주할 수 있을 정도로 정진하면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고, 그대의 병
도 다 낫는다”고 해서 그 다라니경을 송
주하게 되었습니다.

않으나 서나 일심으로 주려하기 십일
쯤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내 주치의가
당시 외정병원의 일본인 의사였는데, “이
선생의 병이 다 나았어요” 하며 아주 기
뻐하더라고요. 퍼뜩 정신을 차리니 꿈이
었어요. 그런데 몸이 날아갈 듯이 가볍고
상쾌해지면서 식욕이 생겼습니다.

그때 나는 참으로 부처님과 관세음보
살님의 대대비한 가피에 마음 속으로
감투하며 헤아릴 수 없는 대은혜를 느꼈
고, 불전에 무수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출가입산하게 되었고, 불은 보
답하기 위해 정진하며 이렇게 지내왔습
니다.

—고뇌에 시달리는 중생의 구제방법에는
참선 간경 열불 주력 등 많이 있습니다.
나는 처음에 주력으로 가피를 입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럴 필요는 없겠지요. 다
나는 절의 스님에게 배운 대로, 방
편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기도는
어려운 일을 맞았을 때 하는 것이 아닙
니다. 경소에 원(願)을 세우고 자기를 가
다듬는 기도를 한다면 어려운 일을 미리
막기도 하겠지요.

—돈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원인으로 작
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식 열풍도 이의
반증이 아닐까 합니다. 주식 투자로 몇
억을 벌었다는 소리를 듣기도 하는데,
돈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를 일러 주십시
요.

▲ 지금은 교육이 잘못 됐어요. 내가 대
통령을 한다면 교육에 가장 신경을 많이
들 것입니다. 국제화시대라고 하니 초등
학생들에게 영어 가르치는 것이 나쁘다
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배운 것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가르치지
않고 있어요. 투철한 국가관과 예의를 제
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면 목적없는 교육

도 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에
게 무슨 신통한 일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게
살면 되는 것이예요.

우리 불교만 봐도 그래요. 석가모니 부
처님의 가르침의 요체는 연기법인데, 불
교인이 불교를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
니 신심이 없고 감투와 돈에만 관심을
가져요. 싸움이 그치지 않고, 싸움났다
하면 체탈도참시켜요. 중노릇 하겠다는
사람들을 왜 쫓아내니까? 악랄한 세속에
서도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한마디 더
한다면, 불교의 청정수행 가풍을 지켜온
정화의 전통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수행과 기도, 신행이 불자들의 기본
생활이 되어야 할 줄 압니까. 스님께서

Advertisement for 'Shinshik Gyeongjung' (新食 慶正) featuring 'Ginseng Flower' (金檀花). Text describes its benefits for various ailments and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a clinic.

Advertisement for 'Hwangto Hupbeol-gige' (皇土 흡벽돌기계), a machine for processing ginseng. Includes a photo of the machine and contact details for Hwangto Village.

Advertisement for 'Puzibong (Sanbong) Ekgis' (부지봉(산봉) 엑기스 개발). Promotes a ginseng extract product with photos and detailed information about its production and benefits.